

이달 체육행사 무기한 연기

전북도지사기 배드민턴대회 등
 도내 4개 대회, 코로나19 여파로
 8개월 운영 동호인리그, 잠정 중단
 내달 이후 체육행사 개최도 불투명

코로나19 확산으로 예정됐던 체육 행사(대회)가 줄줄이 연기되고 있다.
 2일 전북체육회(회장 정강선)에 따르면 이달 개최 예정이던 4개 대회가 모두 무기한 연기됐

다고 밝혔다.
 오는 6일부터 사흘간 전주 화산체육관에서는 약 2,0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28회 도지사기 배드민턴대회가 펼쳐질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로 연기됐다.
 또 제13회 도지사기 축구대회와 제37회 도지사기 볼링대회, 제5회 도지사배 등산대회 등도 모두 연기됐다.
 이달부터 8개월간 운영할 예정이던 전북 동호인리그도 잠정 중단 상태다.
 이처럼 코로나19가 체육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지 않을 경우 4월 이후 체육행사 개최도 불투명해질 전망이다.

한편 4월에는 제17회 도지사기 전국합기도대회와 제6회 전라북도지사기 빙상대회, 도지사기 패러글라이딩대회 등이 예정돼 있고 5월에는 도지사배 택견 클럽리그전과 제39회 도지사기 직장대항 축구대회, 제5회 도지사배 파크골프대회 등이 마련돼 있다.
 현재 전북체육회는 4~5월 개최예정인 대회와 관련 전라북도, 종목단체 등과 협의, 일정 조율을 검토 중이다.
 유인탁 사무처장은 "코로나19 지역 확산을 막기 위해 체육계에서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체육인 모두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이정대 KBL 총재가 2일 오전 서울 강남구 KBL 센터에서 열린 제25기 제4차 이사회를 주재하고 있다.

‘코로나19 직격탄’ 男 프로농구, 28일까지 정규리그 중단

KBL “상황 지켜보며 재개 논의”... 무관중 수도권 중립경기도 검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남자 프로농구가 일단 28일까지 정규리그를 중단한다.
 남자 프로농구를 주관하는 KBL은 2일 서울 강남구 KBL 센터에서 제25기 제4차 이사회를 열고 2019~2020 현대모비스 프로농구 정규리그 잠정 중단에 따른 후속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KBL 이사회는 28일까지 정규리그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그간 대표팀의 국제대회 출전으로 리그가 중단된 경우는 있었지만, 시즌 도중 예정에 없던 리그 중단은 1997년 프로농구가 출범한 이래 처음이다.
 KBL은 일단 28일까지 정규리그를 중단했다가 29일 재개한다는 계획이지만,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되면 각 구단과 협의해 일정을 앞당

겨 재개할 방침이다.
 정규리그가 중단된 기간 동안 KBL은 코로나19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이사회를 통해 일정 재개 후 관중 입장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무관중 경기를 시행할 경우 선수 안전과 이동 동선 최소화를 위해 수도권 지역 중립 경기 진행 여부도 논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 후속 대응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프로농구는 정규리그가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 코로나19가 급격하게 확산돼 직격탄을 맞았다.
 지난달 28일부터 무관중 경기를 치르다가 1일부터 정규리그를 잠정 중단했다.
 부산 KT에서 뛰던 앨런 더햄과 바이런 멀린스, 고양 오리온의 보리스 사보비치가 코로나

19 감염을 우려해 ‘자진 퇴출’하고 한국을 떠나는 일이 벌어졌다.
 이런 가운데 전주 KCC 선수단의 전주 숙소에서 확진자가 나오면서 KBL은 1일 정규리그 중단을 결정했다.
 정규리그가 재개되면 올 시즌 잔여 정규경기(57경기) 일정을 정상적으로 소화하기로 했다.
 6강·4강 플레이오프와 챔피언결정전 일정과 진행 방식에 대해서는 추후 이사회에서 정하기로 했다.
 당초 정규리그를 정상적으로 치르고 플레이오프, 챔피언결정전까지 하면 5월10일에 시즌이 끝날 예정이었다. 이후 자유계약선수(FA) 등 비시즌 일정이 있어 KBL은 5월10일까지는 시즌이 마무리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규리그를 4주 중단한 후 6라운드까지 정상 소화하고, 5월10일까지 일정을 마무리하려면 플레이오프 축소 운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뉴시스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무대를 누비고 있는 임성재(22)가 50번째 도전 끝에 첫 승의 감격을 누렸다.

임성재, 50번째 도전 끝 PGA 첫 승

혼다 클래식 최종 라운드서 4언더파 66타로 우승
 최경주·양용은·배상문 등에 이어 한국인 7번째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무대를 누비고 있는 임성재(22)가 50번째 도전 끝에 첫 승의 감격을 누렸다.
 임성재는 2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 가든의 PGA 내셔널 챔피언스 코스(파70·7125야드)에서 열린 PGA 투어 혼다 클래식 최종 라운드에서 4언더파 66타를 쳤다.
 최종합계 6언더파 274타를 적어낸 임성재는 맥켄지 휴즈(캐나다)의 추격을 1타차로 따돌리고 트로피에 입을 맞췄다.

임성재가 PGA 투어에서 정상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식 데뷔 전인 2017~2018시즌 두 번 출전한 것을 포함해 50번째 대회에서 거둔 쾌거다.
 신인왕을 차지했던 2018~2019시즌에도 우승컵과 연을 맺지 못했던 임성재는 혼다 클래식을 통해 마수걸이 승리를 신고했다.
 임성재는 최경주, 양용은, 배상문, 노승열, 김시우, 강성훈에 이어 한국인 7번째로 PGA투어 우승자로 이름을 올렸다. /뉴시스

전북현대 김진수, 코로나19 확산 방지 5000만원 기부

“아름 겪고 계신 분들에게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 싶어”



보태고 싶었다”고 말했다.

전북현대모비스축구단의 국가대표 수비수 김진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선행에 동참했다.
 김진수는 지난 2월 29일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성금 5000만 원을 전달했다고 2일 밝혔다.
 이 기금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

들과 의료진 및 방역 인력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는데 쓰일 계획이다.
 김진수는 “코로나19로 인해 아픔을 겪고 계신 분들과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헌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작은 힘이라도

/뉴시스

진안 마이산탐사,

CNN 선정 ‘한국의 가장 아름다운 사찰’

진안 마이산, 한국관광 100선 3회 연속 선정
 세계 최고 권위 여행 안내서 프랑스 미술뱅크런가이드 별 3개(★★★) 만점